

전일동향

전일대비 5.90원 하락한 1,381.30원에 마감

22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5.90원 하락한 1,381.3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0.20원 하락한 1,377.0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달러 약세 및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에 1,373.00원까지 하락했다. 다만, 결제 수요 유입에 환율은 1,382.00원까지 레벨을 높인 뒤 횡보하며, 1,381.3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9.0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64.37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77.00	1386.30	1373.00	1381.30	1378.40
엔화	965.35	966.95	956.41	959.07	-	
유로화	1571.45	1572.39	1554.48	1557.83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	-0.8	-6.98	-15.93
결제환율(수입)		-0.6	-6.19	-14.1	-28.38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글로벌 달러화 반등에...1,38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3.2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81.30) 대비 0.90원 상승한 1,379.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경기 업황 및 장기 국채금리 급등세 안정 등에 따른 달러 강세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국 5월 제조업 PMI는 52.3pt로 예상치(49.9pt) 및 전월치(50.2pt)를 상회했다. 서비스업 PMI도 52.3pt로 예상치(51.0pt) 및 전월치(50.8pt)를 웃돌았다. 월러 연준 이사는 교역국에 대한 관세가 10%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,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. 연준 이사의 비둘기파적 발언 및 저가 매수 유입 등에 미국 10년물은 급등세가 진정되며 4.53%로 하락 마감했다. 이에 달러화는 제조업 심리 개선 및 국채 금리 안정에 0.33 상승한 99.93pt를 기록했다. 한편 유로존 5월 서비스업 PMI는 48.9로 예상치(50.5) 및 기준선(50)을 하회했다. 유로지역 업황 부진에 유로화는 약세 전환했다. 엔화는 미-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환율 레벨 논의가 없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. 금일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연동되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 수입업체 결제 등 저가매수 유입 및 국내증시 외인 순매도 물량 등은 환율 상승 재료로 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.

다만, 수출 네고 물량 등에 환율의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78.00 ~ 1387.40 원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2237.13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.90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41859.09, -1.35p(0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08.07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7213 억원